

부처님은 끊어오르는 욕망을 어떻게 봤나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9. 인간의 욕망에 관해서 ④

욕망이라는 과제
부처님의 근본설법인 '사제설법' 즉 '네 가지의 성스러운 명제(命題)'에 관한 설법에서 그 제이의 '성스러운 명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었다.

"비구들이여, 고의 집(集)(원인)의 성제란 이것이다. 즉 후유(後有)를 가져오며, 희탐(喜貪)이 함께 일어나며, 이곳저곳에서 환희(歡喜)하는 갈애(渴愛)이다. 이것에 욕애(慾愛)와 무유애(無有愛)가 있다."

여기에 부다는 '무엇이 있음으로 해서, 이 괴로움의 인생이 있는 것일까' 라고 물으면서, 그 '연(緣)해서 생기는' 원인을 '갈애(渴愛)' 즉 목마른 자가 몹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욕망의 작용에서 찾아내며 또 그 욕망의 작용을 분석하여 명쾌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또 '사제설법'의 제삼의 '성스러운 명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들이여, 고(苦)의 멸의 성제란 이런 것이다. 즉 이 갈애(渴愛)를 남김없이 떠나서 멸할 때 해탈(解脫)하여 집착(執着)없는 것에 달하는다."

여기에서 부다는 '무엇이 멸하는 데 연(緣)해서 이 고(苦)의 인생이 멸하는 것일까' 라고 추구하고면서 그 '연(緣)하여 멸하는' 방법을 갈애의 이멸에서 찾아낼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들은 석존의 욕망에 관한 중요한 언급(言及)이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할 줄 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제설법'은 부다 설법의 핵심(核心)이며 여래가 설명하는 교법의 근본이다. 그것은 이 인생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결국은 고(苦)이다' 라고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의사(醫師)는 병자를 앞에 두고 먼저 그 병상(病狀)을 진찰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다는 이 인생의 현실의 모습을 진찰하여 그것은 '일체개고(一切皆苦)' 라고 부정하였다. 사람들이 즐기며 안심하면서의 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의사는 다음에는 그 병상(病狀)이 연(緣)하여 생긴 원인을 추궁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다는 이 괴로운 인생의 연하여 생기는 원인을 추궁하여 그것은 갈애라고 결론지었다. 다시 또 병상을 알며 그 원인을 안 의사는 그 병에 대한 처치(處置)의 방법과 방침을 강구(講究)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다는 여기에 그 고(苦)의 인생에 대한 처방(處方)을 강구하여 그것을 갈애의 이멸에서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그 처방에 따라서 투약(投藥) 또는 수술(手術) 혹은 안정(安靜)등을 명하며 실시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다는 제사의 성제에 있어

서 '성스러운 팔지(八支)'의 길을 설명하며 제삼의 성제의 실현의 길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사제설법'의 과제는 괴로운 인생 안에서 즉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욕망의 작용에 있다. 욕망의 작용이 있음으로 연(緣)해서 이 괴로운 인생이 있으며 이 욕망의 작용을 없게 함으로써 이 괴로운 인생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부다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관찰하였던 것일까. 또 그 처리의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였을까. 우리들은 먼저 이러한 것들을 깊이 탐색하여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부다 가르침의 핵심(核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욕망은 선악 이전의 것

욕망 그 자체는 무기(無記)이다. '선악의 것 이전의 것'이라고 부다는 틀림없이 생각하였을 것이다. 제이의 성제는 이 고(苦)인 인생이 있는 원인은 갈애라고 말한다. 목마른 자가 몹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욕망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고(苦)의 인생이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다는 '욕망 그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나는 감히 말한다. 왜냐하면 욕망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부다의 근본적 입장과는 도저히 양립(兩立)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그 최초의 설법에서 먼저 그 연유(緣由)하는 근본적 입장을 '중도(中道)'라는 말로써 표시하였다. '중도'란 고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연기(緣起)의 입장에 선다는 말과 상통한다.

예를 들면 여기에 한 자루의 칼이 있다. 그것으로써 우리는 연필을 깎으며 원고를 쓴다. 그 때 이 칼은 일단은 선용(善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른 자가 있었다면 그 때 이 칼은 악용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칼을 그 자체를 단정적으로 '선'이라고 말하며 '악'이라고 말하였다면 그것은 심히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욕망 그 자체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단정하며 혹은 '악'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역시 결코 도리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하나에 식욕(食慾)이란 것을 들어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 식욕에 의해서 음식을 먹는다. 적당히 먹고 몸을 잘 양육하면 그것은 '선'한 일이다. 그러나 탐욕스럽게 먹음으로써 도리어 몸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상. 모든 욕망을 악으로 규정하고 끊어내는 고행수행을 당시 인도 사회는 영웅의 모습으로 추앙했지만, 부처님은 이를 부질 없는 일임을 깨달았다. '욕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종교적 측면에서 오래된 명제이다.

을 손상하게 하는 일도 있다.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먹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선'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욕 그 자체를 '선' 혹은 '악'이라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일까.

부다의 전기를 읽는 사람은 그가 그 수행의 도장에서 엄숙한 금욕고행(禁慾苦行)의 수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욕고행은 보통 사람으로서의 쉽게 행할 수 없는 것이며 한 번 보기에는 영웅적(英雄的)인 행위 같이 생각될 것이다. 특히 인도 사람들은 예부터 고행을 존경하였으며 칭찬하였다. 부처님도 또한 그 때 길고 엄숙한 금욕고행을 수행하여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 사람들의 실망(失望)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을 중지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을 개관적(概觀的)으로 악(惡)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억누른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 도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의 욕망을 개관적으로 선(善)한

것이러 하여 욕망 그대로 쾌락을 일삼는 것을 그 입장으로 하는 주의가 쾌락주의(快樂主義)다.

부다는 물론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또 인간의 욕망을 악한 것이라고 하여 단연히 억누르는 입장으로 그는 버렸다. 왜냐하면 그 두 개의 입장은 어느 것이나 편협(偏狹)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이며, 결국 '무의상응(無儀相應, 도리에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다는 "여래는 이 이변(두 개의 극단)을 버리며 중도(中道)를 현등자(現等)는다"하였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욕망 그 자체는 무기(無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부다의 근본적 입장에 상응(相應)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설(自說)경〉의 한 구절에, "계금(戒禁)은 생활이다, 범행(梵行)은 봉사(奉侍)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극단(極端)이다. 모든 욕망 가운데 그릇된 것이 없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도, 부다의 욕망관(慾望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부처님 열반에 대해

문 강생(降生)한 순서는 이미 저와 같이 시주(柱脚)를 하여 아직 듣지 못한 바를 들려주라

답 사문(四門)에 유관(遊觀)한 것은 사람이 사대환신(四大幻身)이 있어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함은 오직 한 문이 있을 뿐임을 보인 것이다. 열아홉에 성을 넘어 출가한 것은 십팔계(十八界)를 지내 다하고야 바야흐로 출가합이고, 설산(雪山)이라는 것은 설진(織塵)이 이르지 않은 처소이며, 이십육년간을 고행(苦行)하신 것은 육근·육식(六根·六識)을 청정하게 다스림이다.

삼십에 도를 이루신 것은 공자가 말씀하신바 '삼십에 입지(立志)했다' 함이고, 삼백여회를 설법하신 것은 널리 삼계를 위하여 묘법(妙法)을 열어 보이심이다.

과보를 받음은 형벌과 같다. 비록 은혜롭게 한다 말하나 그 실체는 원수로 여김이며, 비록 사랑한다 말하나 그 실체는 해치는 것이다.

마음의 번뇌는 끊는 물이 불에 끓음과 같고, 몸이 업으로 달려감은 나방이 등불로 달려들음과 같으며, 누에가 실을 토하며 스스로 그 몸을 얽어매고 같고, 쇠에 녹이 나 그 형태를 녹여 떨어뜨림과 같이 괴로운 모양이 이 같은 데도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달게 여긴다.

오직 여래가 계시어 장부의 뜻을 분발하고 반야의 검봉(劍鋒)을 잡아 오음(五陰)의 마구니를 격파하고 탐애(貪愛)의 구물을 찢어버리셨다.

이 성(城)을 넣고 저 산에 들어가서 이 마음을 잡되게 씌어 없이 육근(六根)을 청정히 다스리고 일념(一念)으로 정근(精勤)하여 여래의 위없는 지견(知見)을 뚜렷이 깨달으시고 널리 나의 깨달음으로써 인간·천상을 기쁘게 하시었다.

능사(能事)를 이미 마치시고 열반에 장차 들어가시어 쌍으로 가리우고, 쌍으로 비춤으로써 제일의(第一義)를 보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니 혜불 행위는 부모를 욕보이는 것

대대로 부처님이 사람의 수명이 백세가 되는 시기를 당하여 탄생하시는데, 세상에 칠십구년을 머무신 것은 삼십 일곱 살을 감하여 상제(上帝)와 명왕(冥王) 및 아라한(阿羅漢)에게 분부(分付)하시어 그로 하여금 말법 세상을 넘겨주고 이의 되게 하여 충신·효자가 비구의 복과 수명을 닦게 하심이다.

쌍수(雙樹) 사이에 나아가신 것은 중도제일의제를 보이심이고, 금관(金棺)에 예(殮)하여 들어가신 것은 쌍(雙)으로 가리우심이며, 곁에서 두 발을 보이신 것은 쌍으로 비추심이다.

금관이 허공으로 들리면서 불로 변하여 스스로 탄 것은 여래의 몸은 삼계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이신 것이다.

사리가 여덟 섬 네 말에 이른 것은 팔만 사천의 진로번뇌(塵勞煩惱)가 전변하여 진여정정법신(眞如淸淨法身)이 됨을 보이심이다.

대체로 사람이 사대(四大)를 품부(負擔) 받아 열 여덟의 감옥 속에 처한 자는 아내의 감옥이 있어 가두고, 자식의 형틀이 있어 얽어맨다. 그가 업(業)을 받음은 벌과 같고, 그가

이시며, 내지는 자기의 수명을 감하시어 말세의 아손(兒孫)에게 넘겨줌을 드리우시고, 법신을 나누어 널리 세간의 복전을 여시니, 그 중생을 위하신 대비는 몸은 다 했으나 뜻은 다함이 없다. 성인 가운데 지극한 성이이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라면 누가 이와 같겠는가.

이로써 관찰해 본다면 부처님을 배척한 자는 그는 부모를 배척할 것이며, 부처님을 비방한 자는 부모를 비방할 것이며, 부모를 비방하고 배척한 자는 그 죄가 어떠한가.

이러한 악업(惡業)으로 감득(感得)한다면 현세(現世)에는 타고난 형벌(天刑)과 사생의 재앙이 서로 교차하며 공격할 것이다. 몸이 죽은 후에는 용동·발설(融銅·拔舌) 지옥의 깊은 형벌이 있을 것이니 위태로움에 임하여 후회하고 자책할들 스스로 자기의 배움을 물려해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떻게 미칠 수 있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올먼 고당리 473-2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범패 · 작법무 -

불교 예술 대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5년 1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5년 3월 3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안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천도재, 49재 의식 등 생전예수재 특강
- ◇원서교부 : 2015년 1월 15일부터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